

最近 國際協・條約의 動向 WIPO・파리・부다페스트 協・條約 등

WIPO

WIPO는 최근 에쿠아도르를 비롯 기네비싸오·트리니다드 바고·스와질랜드 등 4개국이批准書 또는加入書를寄託함으로써 同協約의加入國數가 1백 12개국으로 증가되었다고 本會에 알려왔다.

위 4개국의批准書 또는寄託書寄託年月日과 效力發生年月日은 다음과 같다.

에쿠아도르

1988年 2月 22日 寄託

1988年 5月 22日 效力發生

기네비싸오

1988年 3月 28日 寄託

1988年 6月 28日 效力發生

트리니다드토바고

1988年 5月 16日 寄託

1988年 8月 16日 效力發生

스와질랜드

1988年 5月 18日 寄託

1988年 8月 18日 效力發生

파리協約

기네비싸오와 트리니다드토바고가 파리協約에加入書를寄託, 새會員國이 되었다.

기네비싸오

1988年 3月 28日 寄託

1988年 6月 28日 效力發生

트리니다드토바고

1988年 5月 16日 寄託

1988年 8月 16日 效力發生

부다페스트條約

FRI 住所 변경

부다페스트條約 第7條에 근거한 日本內 國際寄託機關인 FRI(Fermentation Research

Institute)의 住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3, Higashi 1-Chome
Tsukuba-Shi Ibaraki-Ken
305 Japan.

特許法 統一化條約 체결

개도국 의견조정위해 2~3年후

지난 6월 WIPO에서 개최된 「特許法 일부의 統一化를 위한 條約」이 앞으로 2~3년후에 締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第5次 專門家會議에서 先進國이 開途國의 반발을 감안하여 그 동안 協議를 통해 開途國을 설득한 후인 1990年 이후에 締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안된 條約案은 △發明의 우선권을 特許出願순번으로 결정하는 先願主義를 採擇하고 있으며 △醫藥品 등 새롭게 개발한 物質 자체에 特許權을 인정하며 △保護期間을 出願日로부터 20년으로 한 것 등 17개 항목에 이른다.

그리고 그 동안 美國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그레이스 피리어드」(유예기간) 조항이 새로이 新設되었다. 이 制度는 發明內容을 學會 등에서 발표하여 公知사실이 되어도 그후 1년이내

에는 發明者에게 特許出願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WIPO는 開途國들이 이러한 制度가 모두 「先進國을 위해 있는 制度다」라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開途國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간을 앞으로 2~3년으로 보고 있다.

日本 特許廳長에 吉由文毅씨 임명

日本 통산성은 지난 6월 14일 차관등 간부급 1백 15명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는데 신임 特許廳長에 요시다 후미다케(吉由文毅)씨를 임명했다.

신임 요시다 特許廳長은 취임식에서 「日本의 特許·實用新案의 審查處理기간의 장기화(87년, 3년 1개월)에 대응할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며, 또 「GATT 우루파이 라운드에서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노력하며, 제도가 미비한 開發途上國에 적극적인 協力を 하겠다」고 밝혔다. <omb>